

“홈플러스만의 문제 아니다”... 유통업계 전반 위기감 고조

중국 e커머스 필두로 경쟁 심화
경기침체 장기화... 어려움 가중
“생존 위해 각고의 노력 필요”

경기침체가 유통업계 전반의 실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통업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4월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업 전반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실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업계 역시 경기침체와 소비 트렌드 변화,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익률은 0.9%에 불과했으며, 이마트 역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익률이 0.7%에 그쳤다.

과거 ‘유통업계 르네상스’라 불리던 백화점 업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해 롯데백화점 매출은 3조 2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4061억원으로 19.9% 줄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매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055억원으로 7.8% 감소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1억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급감했다.

백화점 업계는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 요인 중 하나로 통상임금 증가를 꼽았

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방 점포의 매출 부진과 수도권 주요 점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백화점 매출의 대부분은 강남, 여의도, 판교 등 수도권 주요 점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입 창출원이 한정적인 상황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라고 지적했다.

국내 e커머스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G마켓은 지난해 순 매출 96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 감소했으며 674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11번가 역시 지난해 754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규모를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유통업계 불황으로 경기 침체와 맞물린 ‘시장 분화’를 꼽는다.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고, 서로 다른 업종이 융합되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고객층이 저가 소비 채널을 중심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공략 본격화도 새로운 위기 요인으로 떠올랐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소비자의 알리익스프레스 결제 금액은 3조 6897억원, 테무 결제 금액은 600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912만 4000명, 테무는 823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이 빠르게 국내 저가형 소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유통업계 주변 위기 요소가 많은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내수만으로는 위기를 타파하기 어려운데, 중국발 커머스들까지 들어오면서 시장 점유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

/뉴시스

성급한 회생절차... ‘대주주 책임회피’ 논란

마트 등 모든 사업 정상운영 계획
업계 “업황 쉽지 않아... 지켜봐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사업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포 축소나 인력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납품 대금 미지급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회생절차를 낸 것에 대해 대주주의 책임 회피 논란을 피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 회생절차 개시...이후 상황은?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히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사업성과 경쟁력 등 기초 체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통해 조기에 경영 안정을 되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

고,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임원진이 그대로 경영을 이어간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황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될 예정이다. 임직원 급여 역시 정상 지급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재 홈플러스의 금융 부채는 약 2조 원으로 알려졌다. 잔여 계약 기간 모든 임차료를 계상한 임대 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금액이다. 홈플러스 측은 4조 7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 계획이 확정되면 금융 채권자들과의 조정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포 축소·구조조정 가능성은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사업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와의 거래도 지속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 축소나 인력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점포 축소나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혀 없다”라며 “이번 회생절차는 금융채권 상황에 대한 유예 조치일 뿐, 협력업체 대금과 직원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영업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좋지 않다.

홈플러스에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금융 부채 이자 상황 등에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대한 노력을 하기도 전에 회생절차를 먼저 신청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금융부채의 이자 상황이나 대금 지급 기간을 동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차입으로 무리한 인수합병을 하면서 홈플러스의 재무 부담이 커졌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으로 납품업체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동결되면, 결국 그들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납품업체들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금융권, 홈플러스 익스포저 1.4조 이상 추정 (대출·지급보증 등 위험노출액)

KB국민은행 최다... 546.7억

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금융권의 홈플러스 관련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등 위험노출액)가 1조4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2일 현재 전체 금융권의 홈플러스 총 익스포저는 1조 4461억5000만원에 이른다.

5대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546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288억8000만원)·우리은행(270억원) 순이다. 3개 은행의 익스포저가 1105억 5000만원 규모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관련 대출 등이 없는 상태다.

전체 금융권에선 메리츠증권의 익스포저 규모가 655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메리츠캐피탈과 메리츠화재는 각각 2807억7000만원이다.

앞서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는 작년 5

월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1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메리츠 금융 3사에 담보로 제공했고, 해당 신탁계약은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유형자산을 신탁재산으로 관리 중이다.

메리츠금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원으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로 제공돼 있으며 메리츠금융그룹은 해당 신탁에 대해 1순위 수익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시 즉시 담보 처분권이 생긴다”고도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860억원), 서울보증보험(219억4000만원)도 보증 등과 관련해 적지 않은 홈플러스발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신하은 기자 godhe@